



# 궁·금·함·니·다

◆ 본고는 본회 인터넷 홈페이지(www.koreapork.or.kr)의 '전문가 상담코너'에 게재된 질문과 답변중 일부를 발췌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편집자 주 ◆

## .. 사 양 ..

**Q** 사육환경(온도, 습도, 기류, 암모니아 농도)에 따른 돼지의 육질 변화(등급 관련)의 연관성을 알고 싶습니다. 인터넷이나 여러 기관들을 검색해 본 결과, 사육환경에 있어서 적정온도, 적정습도 등은 나와 있지만 제가 궁금해 하는 사항들은 없어서 질문 드립니다.

**A** <이재춘 한별피크클리닉 원장>  
사육환경에 따른 돼지의 육질 변화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 자료가 있는지 저도 아직은 접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돼지가 성장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사육환경 예를 들면 환기불량으로 가스가 심하다든가, 섯바람, 또 온도 및 습도가 매우 높거나 반대로 극심하게 춥거나 할 경우 돼지의 성장에는 악영향을 끼치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 경우 비육돈의 균일도가 문제 될 수 있으며 같은 일령에서 같은 사료를 급이 하더라도 개체 별로 편차가 커지므로 육질이 전반적으로 저하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일반적으로 건강하게 발육하는 돼지의 체형이 좋고 규격화 될 수 있으며 따라서 좋은 품질의 돈육을 계획적으로 생산 할 수 있습니다.

**Q** 돈사 내의 밝기를 어느 정도로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은지 알고 싶습니다. 불을 켜두는 것이 좋다면 하루 몇 시간 정도 켜두는 것이 좋은지 알려주십시오.

**A** <김태주 한국애니멀클리닉&컨설팅 대표>  
불의 밝기는 번식돈에서 발정단백질(Estro protein)을 합성시키는 전구물질이 되는데, 최소 50LUX 이상으로 16시간 정도는 밝혀 줘야 됩니다. 적정 조도는 300LUX이고요, 10LUX 이하나 1,200LUX 이상은 오히려 해로울 수 있습니다.

육성돈에서는 서로를 인지할 수 있을 정도면 됩니다. 너무 밝으면 증체에 지장이 되고, 사료를 먹을 수 있을 정도의 밝기에 잠을 잘 수 있을 정도로 너무 밝지 않은 것이 좋습니다. 돼지의 시력은 0.017~0.07로 낮지만 사람에 비해 명암을 담당하는 간상세포가 발달하여 움직임 등의 정도로 물체를 식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색깔의 식별은 힘들어 일부 색맹(특히 적색)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번식돈사를 보온 덮개 등으로 덮는다는 지, 어두운 색깔의 윈치커튼을 사용 한다든지 또는, 겨울을 지난 후보돈들이 발정이 잘 안오는 것 등이 좋은 예입니다.

**Q** 수유중인 모돈(분만 10일 정도됨)이 기립불능이고 기립하려고 해도 뒷다리를 X자로 꼬면서 중심을 잡지 못하고 다시 쓰러집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누워있는 상태에서 바가지에 물을 떠서 흘려주면서 급수를 하고 있고 급이는 매우 힘든 실정입니다. 포유자돈들은 대용유 및 모돈의 젖을 먹고 있는데 모돈이 워낙 허약하여 걱정입니다.

증상은 분만 후부터 물은 먹는데 사료를 먹지 않고, 농장에서의 조치는 항생제 및 해열제, 영양제, 철분, 칼슘제를 주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몸에서 열이 많이 나는 증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증상의 원인, 대책 등을 부탁드립니다.

**A** <김태주 한국애니멀클리닉&컨설팅 대표>  
열이 나는 것으로 보면 어딘가 염증이(자궁질환이나 방광염)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태아 정체 등으로 염증화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심한 통증 등으로 식욕부진이나 절폐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분만 10일이 경과되었다니 늦은 감이 있네요. 일단 자돈은 양자를 보내시고, 모돈은 5% 포도당 + 광범위 항생제 등을 사용해 보십시오.

**Q** 현재 저희 농장의 돼지가 마르고 살찌고 다양합니다. 임신사에서는 마른 돼지를 살을 찌울 수는 있지만 그 반대의 경우는 어렵습니다. 분만사에서는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하는지요. 분만사 입장은 입식할 때 이미 과비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계속 악순환이 되지 않을까요?

**A** <김태주 한국애니멀클리닉&컨설팅 대표>  
분만사에서부터 서서히 개체관리가 들어가야겠지요. 과비된 돼지는 바디컨디션만 맞추려 무리해서 감량하면 안되니 주위 전문가나 사용하

는 사료회사 전문가와 상의하는 편이 현명하리라 봅니다. 에너지가가 낮은 사료를 쓰던가 발아 사료나 조섬유 함량이 높은 사료와 미네랄 제제 등으로 반복감은 주면서 말입니다.

임신사에서도 보통 사고 모돈이 발생할 때 밸런스가 깨지기 마련이지요. 개체관리(말은 쉽지만 실지는 어렵지요)를 거의 매일 사료통 눈금 조절이나 개별 급이를 해서라도 맞춰가야 하는데 중요한 것은 사료 교체나 사고 모돈 발생 시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게 좋을듯 합니다.

또한 종돈 등도 가급적 균일도를 높여야 합니다. 성급하게 한다고 되지는 않습니다.

● ● **번식 및 육종** ● ●

**Q** 작년 한 해 모돈 5두 정도가 거대 태아로 인한 난산으로 인해 도태되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거대 태아가 나타난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거대 태아일때 모돈을 도태시키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A** <박봉균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교수>  
거대태아의 발생은 산자수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산자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 즉 정액의 질, 질병, 영양, 사양관리(포도당 등의 과다 급이) 등이 있었는지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난산시 무리하게 새끼를 꺼내면 산도에 손상을 주어 감염이 될 수 있습니다. 분만 후 항생제 치료를 통하여 자궁의 회복을 정상으로 돌려 줄 수 있는 관리가 필요합니다. **양돈**

